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9월 1주~9월 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플랜트] ¹⁾Inpex 운영 Masela LNG 프로젝트 FEED 착수¹⁾(Bisnis, 8/28)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차관 Yuliot Tanjung은 국가전략프로젝트 (PSN)인 Masela Abadi 가스전 사업이 '25.12월 완료 목표로 FEED 설계에 착수했으며, 해당 과정에는 탄화수소 생산·처리시설과 육상 LNG 플랜트 사양 검토·정의가 포함됨
- 해당 프로젝트는 일본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회사인 Inpex Corporation이 자회사 Inpex Masela, Ltd.를 통해 운영하며, Inpex는 Abadi Masela 가스전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음. 파트너사로는 PT Pertamina Hulu Energi Masela가 20%, Petronas Masela Sdn. Bhd가 15%를 각각 보유
- Yuliot 차관은 아울러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가 약 207억불 (342.05tril IDR)에 달하며, 인니 최초로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초기부터 적용하는 LNG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

○ [인프라] 프라보워 대통령, 800억불 규모 거대 방조제 건설 위한 북부자바해안관리청 설립 발표²⁾(Bisnis, 8/27)

- 대통령은 자카르타 북부에 초대형 방조제 건설 위해 북부자바해안 관리청(Pantura Management Authority) 설립을 발표. 이 기관은 Baten에서 동부자바 Gresik까지 약 500km에 걸쳐 건설될 거대 방조제(Giant Sea Wall) 프로젝트의 실행 주체로서, 사업 관리와 이해관계자 조정 총괄 예정

- 거대 방조제 건설은 약 800억불(1,297tril IDR)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완공까지 15-20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미 관련 로드쇼를 지시했으며, 기관 설립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

- 초대 청장으로는 군인이자 현 해양수산부 차관인 Didit Herdiawan Ashaf가 임명됨. 또한 인프라 및 지역개발 조정부 Agus Harimurti Yudhoyono(AHY) 장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프로젝트 조정 및 참여사 유치 담당 예정

○ [인프라] 공공사업부, 거대 방조제 건설 관련 북부자바해안관리청 협업 준비³⁾(Bisnis, 8/26)

- 공공사업부(PU)는 다수의 관련 연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대 방조제 추진 관련 신설된 북부자바해안관리청과 협업 준비중
- 동 프로젝트는 생태계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고, 해안 지역 주민을 조수 범람과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투자 유치를 통해 실행할 계획

○ [인프라]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거대 방조제 로드맵 수립예정⁴⁾(Bisnis, 8/27)

-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Agus Harimurti Yudhoyono(AHY) 장관은 북부자바해안관리청 감독 및 총괄 책임자로서 초기단계 로드맵 수립 및 종합적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 거대 방조제 건설은 민간투자 기반 PPP 방식을 통해 국가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북부자바해안관리청 Didit Herdiawan 청장도 출범초기 내부정비 후 투자 유치 단계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

○ [인프라] 공공사업부,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2026년 완공 목표⁵⁾(Bisnis, 8/26)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28/44/1906688/masela-jadi-proyek-lng-pertama-pakai-teknologi-ccs-investasi-rp342-triliun>

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25/45/1906371/prabowo-bentuk-badan-otorita-tanggap-laut-ahy-jadi-dewan-pengarah>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26/45/1906745/kementerian-pu-tungpu-arahan-badan-otorita-pantura-saal-giant-sea-wall>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27/45/1906100/badan-otorita-pantura-rancang-rodmap-proyek-giant-sea-wall>

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26/45/1906679/apa-labar-proyek-tol-serang-panimbang-begitu-progresnya>

- 공공사업부(PU)는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국가전략프로젝트 (PSN)가 '26. 4분기 완공될 예정임을 밝힘
- 공공사업부 산하 유료도로규제기구(BPJT)가 밝힌 구간별 진척도:
 - 1구간 Serang-Rangkasbitung, 26.5km: '21.12월부터 운영중
 - 2구간 Rangkasbitung-Cileles, 24.17km: '26.1Q 완공 목표. 현 공정률 89.51%, 토지확보율 86.59%
 - 3구간 Cileles-Panimbang, 33km: '26.4Q 완공 목표. 예산사업이며, 공정률은 1단계 97.7%, 2단계 36%, 3단계 28.8%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현지공기업] PT WIKA, 1~7월 누계 계약액(약 2.9억불) 및 내용 발표, 지속가능경영 강화 천명⁶⁾(Bisnis, 8/25)
 - 국영 건설사 PT Wijaya Karya(WIKA)의 Agung Budi Waskito 사장은 '25. 7월까지 계약액 누계가 2.9억불(4.78tril IDR)에 달함을 밝히며, 계약내용도 ESG전략에 부합한다고 설명
 - 신규 계약에서 건설자재, PC콘크리트 등이 49.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프라/건축 33.68%, 에너지/산업플랜트 7.8%, 부동산 6.66%, 투자 2.08%로서 다각화 및 포트폴리오 균형을 강조
- [현지기업] 민간발전사협회, 전력수출시 정부·민간 협력 필요성 강조⁷⁾(Bisnis, 9/2)
 - 인니 민간발전사협회(APLSI)는 PLN이 전력수출총괄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전력법 제30호(2009년) 개정안 관련, 민간기업도 전력수출에 참여가 허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APLSI 협회장 Eka Satria는 전력수출이 정부-국영기업-민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 또한 APLSI는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전력수출을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최대 이익을 제공하고 외화 수입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

- PLN을 전력수출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제안은 하원(DPR) 제12 위원회 청문회에서 PLN 법무 및 인적자원관리부 이사 Yusuf Didi Setiarto가 제출하였으며, 국가간 전력판매가 전략적, 주권적 사항이고 에너지안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부가 직접 관리·통제해야 한다는 입장
- [해외기업] 배터리·소재 재활용기업 ⁸⁾GEM, Danantara와 니켈 가공센터 공동투자 예정⁸⁾(Bisnis, 8/27)
 - 국부펀드 Danantara와 중국 배터리 및 소재 재활용 기업 GEM가 니켈가공센터 공동투자 추진중. Danantara의 첫 니켈 프로젝트임
 - 이번 투자는 인니 정부가 추진하는 니켈 기반 전기차(EV) 배터리 생태계 구축 전략과 부합. Danantara CIO Pandu Sjahrir는 이번 프로젝트가 넷제로 및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GEM은 Vale, 에코프로, Merdeka와 협력중임을 밝혔으며, Pandu CIO는 투자 규모 및 착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음
 - Pandu CIO는 Danantara가 올해 약 83억불(135tril IDR) 규모의 투자 펀드를 관리할 예정이며, 이 중 약 42.4억불(70tril IDR)는 국영기업의 배당금에서 조달된다고 설명. 나머지 자금은 인니 기업 대상 Patriot Bonds 판매와 최근 확보한 100억불 규모 크레딧라인을 통해 마련할 계획. Patriot Bonds는 Barito Pacific, AlamTri, Sinarmas 등 주요기업에서 관심 표명중이라 덧붙임
- [해외기업] ⁹⁾Eramet, INA-Danantara와 니켈 협력강화⁹⁾(Metrotv, 9/1)
 - 국부펀드 INA와 Danantara가 프랑스 Eramet와 MOU를 체결하고 니켈 산업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 공동구축을 추진. 이는 지난 5월 프라보워 대통령과

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02/44/1907681/swasta-ingin-ambil-bagian-dalam-peluang-ekspor-listrik-ke-singapura>

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27/44/1908024/danantara-dan-gem-china-siap-investasi-bangun-hub-industri-nikel-di-ni>

9) <https://www.metrotvnews.com/read/18WDChp4-danantara-ina-bisa-jadi-seriata-baru-raup-investasi-global>

마크롱 대통령간 회담에서 도출된 21개 합의사항 중 하나에 해당

- Paramadina University 경제학자 Wijayanto Sarimin는 INA와 Danantara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거나 동일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두 기관의 경쟁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인도네시아의 투자 유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

○ [해외기업] 에너지광물자원부, [※]SUS 폐기물발전소 긍정 평가¹⁰⁾
(Antara, 9/1)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지난 5월 4년 만에 전력공급사업계획(RUPTL 2025-2034)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및 폐기물 전력전환 필요성 강조, WTE를 에너지전환과 폐기물 관리 위기 대응의 핵심과제로 지목
-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 Yuliot Tanjung과 대표단은 지난 8월 중국 폐기물 소각 기술업체 SUS Int'l의 Jiaxing 폐기물 발전소를 방문, 첨단 기술력과 정원형으로 설계된 발전소 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
- SUS Int'l CEO Eric Zhan는 전 세계 300개 프로젝트에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며 하루 3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 단일라인 기준 75톤에서 1200톤까지 처리 가능한 소각로를 생산할 수 있어 인니 시장에 적합하다고 밝힘

○ [해외기업] [※]Trina Solar 100GW 태양광발전 건설 논의^(Kocham, 9/1)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Bahlil Lahadalia는 지난 8.14 중국 Trina Solar을 방문, 100GW 태양광 발전 건설 방안을 논의. 인니 태양광설치용량이 912MW¹¹⁾에 불과한 반면 잠재력은 3,294GWp에 달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자립과 안정성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
- 해당 협력의 중심에는 Trina Solar와 현지 파트너가 설립한

TMAI가 있으며, 이 공장은 중부 자와주 끈달경제특구(KEK Kendal)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최초 통합(Tier-1) 태양광 생산 시설로, 초기 연간 1GWp 규모 셀·모듈 생산 능력을 갖추고 향후 2~3년 내 3GWp까지 확대, i-TOPCon N형 기술을 적용해 고효율 제품을 생산할 계획

- 인니 정부는 TMAI가 부품 국산화 및 다운스트림 정책 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배터리·인버터 등 지원 산업 육성과 웨이퍼·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제련소 개발을 포함한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 또한 마을 협동조합(Koperasi Desa) 기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병행해 에너지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 Trina Solar와의 협력 범위는 ▲고효율 기술 이전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포함 통합 솔루션 개발 ▲IoT 기반 스마트에너지 프로젝트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될 예정

○ [해외기업] 중국 Wison New Energies 조선소, 인도네시아 FLNG 27년 생산 목표로 건조 진행^(Kocham, 9/1)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Bahlil Lahadalia는 지난 8.13일 중국 Wison New Energies 조선소를 방문해 FLNG 건조 과정을 점검. 본 시설은 세계 최대 FLNG로 서파푸아주 해상에서 AKM 가스전 천연가스를 액화 처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예정
- Bahlil 장관은 FLNG 시설이 2027년 1분기 완공, 2~3분기 생산을 시작하며 국가 가스 자원 활용 극대화과 에너지 수입의존도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해당 시설은 연간 최대 120만톤 LNG 생산 능력과 총 투자액 약 963백만불(15.5tril IDR)이며, 지난 6월 PT Rayer Nusantara Gas와 Wison New Energies간 계약 체결로 본격화. 2027년부터 AKM 가스전 하루 3.3억 표준입방피트(MMSCFD) 가스를 공급받아 처리 예정
- Wison Nantong 조선소는 2006년부터 특수 해양플랜트 건조에 특화된 대규모 시설로,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EPCIC 역량을 갖춘.

10) <https://www.antaranews.com/berita/5078185/indonesia-iajaki-solusi-waste-to-energy-lewat-kunjungan-lapangan-ke-proyek-wte-sus-jiaxing>

11) 2024년 12월 기준

전문가들은 FLNG 가동이 인도네시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 LNG 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

3. 정부 정책동향

○ 인니 ‘26년도 예산안(RAPBN) 발표 및 재정 전망(Kocham, 9/2)

-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8.15 식량·에너지·경제자립을 골자로 하는 ‘26년도 국가 세입 및 지출 예산안(RAPBN)을 의회에 제출
- ‘26년도 국가예산규모는 총수입 약 1,930억불(3,147.7tril IDR), 총지출 약 2,320억불(3,786.5tril IDR)로 재정적자는 GDP 대비 2.48% 수준인 약 389억불(638.8tril IDR)임
- 2025년도 대비 총수입은 4.75%, 총지출은 4.56% 증가했으며 2025년도 예산 전망치 대비 총수입은 9.85%, 총지출은 7.34% 증가. 또한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금년 전망치 약 404억불(662tril IDR) 대비 낮은 수준인 약 390억불(639tril IDR) 수준으로 책정,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금년 전망치인 2.78%에서 2.48%로 하락. 경제성장률 5.2~5.8%, 물가상승률 1.5~3.5%, 환율 1불당 16,500-16,900 IDR 예상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	2025 전망치
총수입	1,921 (3,147.7)	1,834 (3,005.1)	1,748 (2,865.5)
- 조세수입	1,643 (2,692)	1,520 (2,490.9)	1,457 (2,387.3)
- 비조세수입	277 (455)	313 (513.6)	291 (477.2)
총지출	2,311 (3,786.5)	2,210 (3,621.3)	2,152 (3,527.5)
- 중앙정부지출	1,914 (3,136.5)	1,648 (2,701.4)	1,625 (2,663.4)
- 지방이전	396 (650)	560 (919.9)	527 (864.1)
재정적자	389 (638.8)	373 (612.2)	404 (662)
-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2.48	2.53	2.78

2026년 예산 초안, 2025년 예산 및 전망치 비교

단위: 억불 (tril IDR)

*억불은 9월4일 환율 기준 환산된 값

○ ‘26년도 예산안 세입 확대 및 조세 정책(Kocham, 9/2)

- ‘26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세입 확대로 재무부장관 Sri Mylyani는 세수액을 전년비 13.5% 증가한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밝히며, GDP(예상 평균 5.4%)와 인플레이션(2.5%) 전망치를 감안할 때, 세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
- Sri 장관은 조세수입 확대를 위한 법·제도 변경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며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조세 시스템 개혁을 통해 세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부연
- 목표 성장률 5.4% 달성을 위해서는 약 4,548억불(7,450tril IDR)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Airlangga 경제조정장관은 사업환경 개선, 국부펀드 통한 투자유치를 강조

○ ‘26년도 예산안 우선과제(Kocham, 9/2)

- 프라보워 대통령은 ‘26년 예산안 제출시 국정연설을 통해 ▲식량안보 약 100억불(164.4tril IDR) ▲에너지안보 약 245억불(402.4tril IDR) ▲무상급식(MBG) 및 교육 약 462억불(757.8tril IDR) ▲보건 약 148억불(244tril IDR) ▲협동조합 약 50억불(83tril IDR) ▲국방 ▲Danantara를 통한 투자·무역 확대 등 8개의 우선의제에 재정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발표
- 교육 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62억불로 이 중 약 44%인 204억불(335tril IDR)이 무상급식에 배정됨. 이는 올해 104억불(171tril IDR)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로, 내년 총 8,290만명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중소기업 참여 통해 역량강화, 고용창출 등 승수효과 기대
- 식량 및 에너지안보 예산은 ‘25년 대비 각각 5.93%, 2.05% 증액 예정. 식량의 경우 비료 지원, 농기계 현대화 등 생산성 제고에 집중하며, 에너지안보 예산 절반 이상인 약 128억불(210.1tril IDR)은 에너지 보조금으로 할당

- 국방·안보·법무 예산은 259억불(424.8tril IDR)로 '25년 대비 12.86% 증액. 이 중 국방은 '25년대비 약 11.38% 증가
- Danantara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여, 380억불 규모의 다운스트림 사업 및 주택 300만호 건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 **Danantara, 폐기물 발전소 심사 주관 및 투자·운영 참여 가능성**¹²⁾(Tempo, 9/2)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에너지신재생보존국장 Eniya Listiani은 폐기물발전소 개발신청서 심사과정에 Danantara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하며, Danantara가 모든 신청서를 우선 제출받은 뒤 민간이 수행할지 직접 추진할지 결정한다고 설명
- Eniya 국장은 Danantara가 자금지원이나 합작투자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하루 최소 1,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해 최대 2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또한 이번 개발이 환경부의 긴급건설대상목록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해당 역량을 갖춘 Danantara가 담당
- 「친환경기술기반 폐기물 발전소 개발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제35호('18년) 개정안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Eniya 국장은 개정안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불하는 폐기물관리부담금(tipping fee)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힘

4. 녹색산업 동향

○ **Sun Energy, 올 연말 태양광 설치용량 270MW 달성전망**¹³⁾(Swa, 8/29)

- 현지기업 Sun Energy는 '16년 설립이후 누적 설치용량 200MW를 달성했으며, 이를 기념해 5.33MW 태양광이 설치된 Cikande 소재 PT Lami Packing Indonesia 공장에서 행사를 개최
- 판매총괄 Oky Gunawan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태국, 호주,

베트남 등 해외 옥상 태양광 파트너십 통해 200MW 달성을 밝힘

- '25년 말까지 설치용량이 27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24년 말 185MW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 다만, 내년도 목표 달성은 PLN 설치 할당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설치 할당량의 최소 30%를 구축할 계획

○ **PLN, 사회책임활동 일환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협력**¹⁴⁾(Rakyat, 9/2)

- PLN 남·동남·서술라웨시 배전총괄부(UID)는 사회책임활동 일환으로 폐기물관리 사회적기업 Rappo Indonesia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유용한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진행
- Rappo Indonesia 설립자 Akmal는 이번 협력이 해안지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150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재활용 가구 생산 통한 주민소득 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힘. 또한 지금까지 1.36톤의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수공업품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제품 기반의 소규모 산업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임

○ **PT PP, 인니 최초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구축**¹⁵⁾(Merdeka, 9/2)

- 국영 건설사 PT PP는 신수도(IKN) 내 인니 은행 건설 프로젝트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유리를 최초로 적용, 인니 기록인증기관 MURI에 공식 등재
- PT PP 이사 Joko Raharjo는 BIPV 유리가 자연광 유입과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가능하며, 단열 효과로 냉방 부하 및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물 구조에 직접 통합되어 심미성, 기능,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구현한다고 설명. 또한 이번 성과가 회사의 친환경 개발 의지를 보여주며 BIPV가 미래 에너지 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이라고 강조

12) <https://www.tempo.co/ekonomi/beran-danantara-dalam-proyek-pembangkit-listrik-tenaga-sampah-2023641>

13) <https://swa.co.id/read/463269/sun-energy-tembus-200-mw-plts-alap-perkuat-kiprah-energi-bersih-di-industri>

14) <https://rakyatku.id/fajar.co.id/2025/09/02/pln-gandeng-rappo-indonesia-kelola-sampah-plastik-jadi-produk-bemilai-guna/>

15) <https://www.merdeka.com/teknologi/inovasi-pertama-di-indonesia-gedung-di-ikn-gunakan-kaca-fotovoltaik-bipv-dan-raih-rekor-muri-462581-mvk.html>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SM플러스 (시나르마스 그룹계열사) - 한국투자리얼에셋자산운용
- (참여기업) LG CNS (MEP(장비공급, 설치) 수행)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LG CNS와 MEP(장비설치) 계약, 현지업체(Acset)와 시공계약 체결완료, 본사 투자심의 원안의결 ('25.9.4) 후 이사회 부의 준비중
- (25년 센터목표) 본사 투자의결

○ (주요동향) KIND 투자심의 원안의결 후 이사회 부의 준비중

- 한투 본사와 상세 Clarification 통해 투자심의안 작성 완료

② BSD 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아파트)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후 연장 (~'25.8월) - 토지가 협상 및 대우건설 자체 FS 완료 - Termsheet 연장 완료 - 최종 FS 수행 필요
- (25년 센터목표) 3차 MOU 체결 / 최종 FS 수행, DD 완료

○ (주요동향) 최종FS 수행을 위해 대우건설, KIND 자금지원 FS 공모 신청, 선정위원회(9.12) 결과 대기

③ 신수도 공무원주택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 (참여기업) 삼성물산, 브란타스(신수도 공무원주택 도급공사 실적보유 건설공기업)
- (사 업 비) 약 4억불
- (사업내용) 신수도내 국방부/군인용 1,400여 세대 21개동 건설, AP로 회수
- (추진현황) '24.10 삼성물산-브란타스 MOU 체결, '24.11 LOI 제출, '25.5.22 LTP 수령
- (25년 센터목표) LTP 기한연장 취득 / 삼성물산-KIND 공동 FS 수행 합의

○ (주요동향) 삼성물산 기용 현지건설턴트, 신수도청과 정기협의 진행중

④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현지 디벨로퍼/토지주
- (참여기업)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검토중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내 산업단지를 단계별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전반적 협력 MOU 체결, '25.5~7월 NDA 체결 및 Pre-FS 수행 / '25년말 JVA 체결 목표
- (25년 센터목표) Deal Pipeline 등재 / 사전검토위 또는 사업선정위 통과, 개발참여

○ (주요동향) 센터-GS 싱가포르법인 면담(9.3) / GS법인→본사 대면보고(9.10)

⑤ 자카르타 MRT 4단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자카르타 주정부(DKI Jakarta)
- (참 여 사)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플레너리 아시아(MOU 체결후 협의중)
- (사 업 비) 15억불 ('22년 Pre-F/S 기준)
- (사업내용) 자카르타 MRT 4호선 건설, 유지보수 ⇒ AP로 회수 (운영 분리예정)
- (추진현황) K-컨소 LOI 제출('23.2), LTP(AP 제외) 수령('24.1.26), 수정 LTP(AP 포함) 수령('25.2.19) - 기한연장 요청('25.7.8) - 플레너리 협력 협의중
- (25년 센터목표) 기한연장 획득 / 플레너리 참여 확정 및 FS업데이트

○ (주요동향) 센터-플레너리 아시아 면담(9.3) / 4자 MOU 체결(9.4)

- 1) 9월내 기한연장 승인 확보, 2) 9월내 플레너리 참여여부 확정 목표로 추진 합의

□ 기타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기타 프로젝트 동향

① 수도이전 / 신수도(누산타라) 건립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현지 국영건설사 재정사업 참여중 / PPP사업 외국기업 참여 추진중
- (사 업 비) 466조 Rp (원화 약 40조원)
- (사업내용)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 및 수질 오염, 난개발, 교통체증, 기반침하 등의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갈리만탄섬 동부지역의 발릭파판과 사마린다 사이에 도시를 신설하여 수도를 이전하는 사업
- (추진현황) 재정사업 위주 1단계(2022~2024) 마무리중, 2단계 사업 '25.8월중 입찰공고 예정

○ (주요동향) 신수도 건립은 부정적 여론·평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장기·대형사업으로, 사업기획 지속 모색 필요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프라보워 대통령, 신수도 3년 내 완공 지시^(Kocham, 9/1)

- 국무부장관 Prasetyo Hadi는 지난 8.15일 국회(MPR) 연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신수도청장 Basuki Hadimuljono에게 향후 3년내 신수도 건설을 중단 없이 완공하도록 지시했으며, 국가적 중점 과제로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발표
- Prasetyo 장관은 대통령이 행정·입법·사법부의 신속한 이전을 지시하고, 단순한 행정이전을 넘어 국가의 미래 비전과 직결됨을 강조했다고 설명.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청사, 하원(DPR), 상원(DPD), 대법원(Mahkamah Agung) 등이 신수도에

건립되며, 공무원/군경 주거단지와 교육·보건·교통시설도 구축예정

- 기타 모든 국가기관의 이전완료는 수도 이전의 필수 조건이며, 신수도는 선진 인도네시아(Indonesia Maju) 비전의 핵심과제임

- 신수도, 정부 추진의지와 재정/투자우려 병존^{16)(Bisnis, 8/24)}

- 신수도 개발은 '26년도 국가예산안에서 384백만불(6.3tril IDR) 예산을 배정받으며 지속 재확인. 재무부장관 Sri Mulyani는 해당 예산이 신수도 중앙정부 핵심구역(KIPP) 내 시설 및 인프라 개발 지원 위해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 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 임기중 신수도 개발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는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Paramadian University 경제학자 Wijayanto Samirin는 신수도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재정여력에 우려를 표명. 또한 투자 생태계 미비로 민간자본에 의존하기 어려우며, 투자자 관심 부족과 재정 한계가 향후에도 개선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의견
- Wijayanto 경제학자는 정부가 신수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부족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수도가 더 이상 국가 최우선 과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부 간 조정을 복잡하게 하고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

- '26년 이후 신수도 재정 공사는 신수도청 직접 발주^{17)(Bisnis, 8/26)}

- 공공사업부(PU) 차관 Diana Kusumastuti에 따르면 현재 신수도에 다년계약(MYC)으로 진행중인 공사들은 '26년내 완공예정
- 이후 공공사업부는 신수도 관련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26년 이후 신수도 공사는 신수도청(OIKN)이 직접 발주, 관리 예정
- 현재 PU가 완료하지 못한 프로젝트 대부분은 신수도 진입 유료 도로 사업이나, 해당 도로들의 공정률은 공개되지 않음

1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24/45/1905127/gibran-pastikan-ikn-badan-ut-pakar-pertanyaan-model-larena-sepi-investor>

1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26/45/1906699/kementerian-pu-setor-garap-proyek-ikn-usai-2026-ini-alasannya#f2280%6B>

- 카자흐스탄 기업, 신수도 개발 참여 LOI 제출¹⁸⁾(Antara, 9/1)
 - 신수도청 투자·기업환경국장 Lazuardi Nasution은 카자흐스탄 5개 투자자가 신수도 개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발표. 이 중 BI Group은 이미 신수도청과 MOU 체결
- 신수도청은 카자흐스탄 포함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수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며,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와 각종 사업 편의가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 또한 신수도의 투자 환경이 경쟁력 있고 개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임
- 카자흐스탄 투자자들은 건설, 교통, IT, AI,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수도 개발 참여의향 표명

② 바탐 항나뎃 공항 확장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IFZA)
- (참여기업)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
- (사 업 비) 5,948억원
- (사업내용) 기존 T1 리뉴얼, T2 신설, 공항운영 및 지원시설 재배치
- (추진현황) 바탐공항 운영권 인수 및 운영 개시('22.7~'47.6)

- (주요동향) 상업시설(14개 사업권, 32개 매장) 운영사업자 선정입찰 완료('24.1). T1 리노베이션 공사 완료 및 운영개시('24.4)
 - T2 신설 재원조달 상황 점검하여 KIND 참여가능성 타진 예정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9월 1~2주)
 - 네트워킹 10건 : OCBC, 월드뱅크, IFC(펀드IR), 맥쿼리자산운용, 칼라일, 토탈에너지스, 삼성물산 상사, 영림원소프트, 도이치은행 외 진출기업, Mulia 호텔·건설공제조합
 - 사업개발 16건 : 마스턴자산운용 싱가포르, KDB 싱가포르, Keppel Land, 대우건설 싱가포르, Sembcorp 본사, 이지스자산운용 싱가포르, IFC(인프라), 수은 싱가포르, 플레너리 아시아, GS건설 싱가포르, 삼성 E&A, 수자원공사, 유신, 시나르마스랜드·영림원소프트, 쌍용건설, KIND 본사
 - 대관업무 2건 ; Bappenas 및 EIPP 자문관, 주 인니 한국대사관 외 진출기업

18) <https://www.antaranews.com/berita/5078441/ciko-lima-peranam-modal-republik-kazakhstan-tertarik-investasi-di-iln>